

## 영상학적으로 전형적인 흡입화상 환자에서 헤파린사용 1예

영남대학교의료원

\*우대형, 이관호, 정진홍, 신경철, 최은영, 김규진, 박정은

화상 환자에서의 폐합병증은 연기 흡입에 의한 호흡기도의 직접손상, 피부화상에 의한 순환 성, 대사성, 감염성 합병증과 이들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병변에 대한 합병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흡입 화상은 불완전 연소된 부산물의 흡입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기도의 화학적 화상으로 폐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남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흡입 화상은 그 기전에 따라 열 손상(thermal injury), 저 산소 가스 흡입, 기관지 폐 독소의 직접 노출, 전신적 독소에 노출 등으로 분류하며, 폐 손상 정도는 연소 가스의 농도, 성분과 노출된 시간 및 동반된 전신 화상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흡입 화상으로 인한 폐 합병증 중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RADS)은 기존의 호흡기 질환이 없던 사람에게서 급성으로 호흡기 자극 물질에 노출된 후에 기도과민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천식 혹은 천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흡입 화상 환자에서 헤파린의 사용은 기관지내 점액 농축성 분비물의 침착을 줄이며, 산소포화도를 높이고, 폐의 압력 손상을 최소화 하며, 폐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5세 여자 환자가 집에서 자고 있던 중 화재로 인하여 흡입 화상을 입고 심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기관지 내시경상 점막이 심하게 비후 되어있었으며 기관지내에 점액 농축성 분비물이 많아 기관지 폐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시행한 가슴 전산화 단층 촬영상 흡입 화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기관지 벽면의 비후가 있었으며 폐 간질에 심한 부종이 있었다. 헤파린 흡입 치료를 6일간 시행하였으며 이후 기관지 폐쇄, 폐부종 등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이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 A Case of Isoniazid-induced Thrombocytopenia: Recovery with Immunoglobulin Therapy

<sup>1</sup>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Seung Hun Lee<sup>1</sup>, Eun Ju Lee<sup>1</sup>, You Eun Kim<sup>1</sup>, Seung Jun Lee<sup>1</sup>, Yu Ji Cho<sup>1,2</sup>, Yi Yeong Jeong<sup>1,2</sup>, Ho Cheol Kim<sup>1,2</sup>,  
Jong Deok Lee<sup>1,2</sup> and Young Sil Hwang<sup>1,2</sup>

A 51-year-old man was diagnosed with pulmonary tuberculosis. Treatment for a 51-year-old man with pulmonary tuberculosis was begun initiated with isoniazid (INH), rifampicin, ethambutol, and pyrazinamide, and but these were discontinued after 3 weeks because of skin rash and itchinessg sensation 3 weeks posttreatment. Isoniazid INH monotherapy was restarted to identify the causative drug after 2 weeks of interruption. Two days laterafter INH administration, his the patient's platelet count was reduced from  $150 \times 103/\text{mm}^3$  to  $4 \times 103/\text{mm}^3$ . The patients did not improve despite of pPlatelet transfusion and oral corticosteroid administration for 2severe days did not cause any improvement in the patient's condition. However, his platelet count was recovered with to  $209 \times 103/\text{mm}^3$  after 2-day administration of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was started for two days. This report describesis a case of INH-induced thrombocytopenia due to INH, a rare adverse event, which was recovered reversed with IVIG, highlighting the efficacy of this treatment for this rare indication.